

『桂林古本』 傷寒論板本の 처방구성에 대한 분석연구

서영배¹ · 강한은¹ *

The statical analysis of GuiLinGuBon <ShanHanZaBingLun> prescriptoin

Seo Young-bae¹ · Kang Han-Eun¹ *

¹Dept. of Oriental medicine, Daejeon University

Found on the 19th century, GuiLinGuBon <ShanHanZaBingLun> can have more several unique features than the other extinguish editions. GuiLinGuBon <ShanHanZaBingLun> has been Receiving attention, because it contains both <ShanHanZaBingLun> and <JinKui YaoLue(『金匱要略』)>'s contents, as well as it consistt of 16 books to the same as the <ShanHanZaBingLun> preperce, and then it analyzed the chapter on Wending Disease(溫病) and Liuyin Disease(六淫病) in detail which is not written in current book, and gives several clues to solve many questions that caused the controversy.

This thesis is the study the GuiLinGuBon <ShanHanZaBingLun> on the overall composition and the prescriptions for the overall analysis to book configuration, herbs configuration, 8 method(八法) according to the prescribed frequency, SinNongBonChoGyong(神農本草經) according to the herbs of the SamPum(三品) classification and statistical processing GuiLinGuBon the specific features were analyzed.

Key Words : GuiLinGuBon, prescriptio, ShanHanZaBingLun, JinKuiYaoLue

I. 서 론

『傷寒論』이 세상에 나온 이후로 오래지 않아 散逸되고, 긴 세월을 내려오면서 경학자, 수집가들이 끊임없이 발견, 정리, 간행하여 그 판본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였는데, 이는 우리가 『傷寒論』을 학습하고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와 문헌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이 텍스트의 원형과 관련한 다양한 판본학적 논쟁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¹⁾

최근 19세기 이후 발견된 여러 傷寒雜病論의 板本 중 하나인 『桂林古本』은 기존의 傷寒雜과 다른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傷寒論』과 『金匱要略』의 두 권에 수록된 내용이 한곳에 수록되어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桂林古本』은 『傷寒論』 序文에서 언급한 16卷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 傷寒論板本은 序文에서 밝힌 16卷으로 구성되지 않아 일부내용이 누락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세 번째 기존 판본과 다르게 이론적 내용이 5卷에 걸쳐 수록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傷寒論』과 『金匱要略』에는 없

* 교신저자 : 강한은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E-mail: khaneun@naver.com

투고일 : 2012년 7월 5일 수정일 : 2012년 7월20일

게재일 : 2012년 8월 2일

1) 박종현 외, 敦煌本『傷寒論』중 輔行訣藏府用藥法要에 관한 연구,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13권 1호(19호); p. 43.

는 『桂林古本』만의 독자적인 처방 92首를 수재하고 있다. 이 처방들은 기존 『傷寒論』과 『金匱要略』의 처방과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임상에서의 활용을 위한 처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국내에서는 『桂林古本』 傷寒雜病論에 관해서는 정²⁾이 조문을 여러 판본의 내용과 비교한 논문 단 한 편만이 발표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桂林古本』 傷寒雜病論에 대한 卷數 구성, 한약재의 구성, 八法에 따른 처방 빈도수, 『神農本草經』에 따른 한약재의 三品분류 등을 통계처리를 하여 『桂林古本』만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II. 본 론

1. 『桂林古本』 傷寒雜病論에 대하여

1.1. 『桂林古本』 『傷寒雜病論』의 발견과 발행

『桂林古本』 傷寒雜病論은 원래 『傷寒論十二稿』라고 불리었으며 계림의 名醫인 羅哲初가 그의 스승 左盛德(字는 修之)에게서 1894년 받은 筆寫秘本이다. 『桂林古本』의 출처에 관하여 예를 들면 左盛德은 원사본의 光緒 25年 序文에서 「내가 우리 스승인 張紹祖선생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말하자면 “우리 집의 『傷寒論』은 전부 13가지 원고가 대대로 전해진다. 매년 하나의 원고가 완성되면 필사본이 대체로 성읍에 두루 퍼진다. 이에 가지고 있는 것은 12번째 원고이고, 나머지는 族人이 비밀리에 가지고 있거나 재해를 입었거나 하는 경우 외에는 없다. 王叔和가 전수한 것은 7번째 원고이다.”」라고 하였다.³⁾ 張紹祖는 스스로 仲景의 46세손이라고 말하였다. 비록 家學을 계승하였지만 醫學으로 이름이 나지는 않았다. 張紹祖는 조상 대대로 전해내려 오던

2) 정종목, 『桂林古本』 傷寒雜病論에 관한 연구, 대구한의대, 2007

3) 張仲景, 桂林古本 傷寒雜病論, 의성당, 2004 ; p.12.

필사본 『傷寒雜病論』 16卷을 左盛德에게 전해 주었고, 左盛德은 또 羅哲初에게 전해 주었다. 羅哲初는 廣西지역에서 근대에 저명한 中醫師이며 字는 樹仁, 號는 克誠子이고 桂林市의 사람으로 1878년에 태어나서 1943년에卒하였으니, 향년 64세였다. 의학이론을 정밀히 연구하여 古方을 이용한 질병치료에 뛰어났고 동시에 鍼灸의 子午流注學說에 능숙하였다. 脈學에 대해서도 상당한 조예가 있었고, 羅哲初가 『傷寒雜病論』에 대하여 특히 연구가 있었다. 30세에 비로소 左盛德을 따라 의학이론을 전문으로 배웠다.⁴⁾

1934년 겨울, 黃竹齊는 浙江省 寧波의 天一閣에 도착하여 仲景의 유서를 탐방하여 구하였으나 미처 얻지 못하였고, 따라서 그 지방 의학계의 名士이자 詩壇의 수장인 周岐隱을 방문하였다. 당시 羅哲初는 寧波에서 醫業을 행하면서 최고로 명성을 누리고 있었고, 周岐隱과 교분도 매우 돈독하였다. 그래서 周岐隱이 소개하여 羅哲初와 만났고, 아울러 周岐隱은 羅哲初에게 그의 스승 左盛德에게 받은 仲景十二稿 『傷寒雜病論』 16卷을 보여줄 것을 중용하였다. 羅哲初는 마침내 그의 스승 左盛德이 廣緒 연간에 그에게 전수해 주었던 『傷寒雜病論』 16卷의 원고 抄本의 맨 첫 책을 黃竹齊에게 보여주었고, 黃竹齊는 마치 지극히 귀중한 보물을 얻은 듯하며 당장 左盛德이 지은 序文과 목록을 재차 한번 베껴 上海로 돌아와 『光華醫學雜誌』에 등재하였다. 1953년 봄, 黃竹齊는 羅哲初를 남경중앙국의관으로 초빙해 함께 일하였는데 바로 이때 『傷寒論十二稿』를 전부 필사해 사본으로 만들었다. 후에 中日전쟁이 일어나서 南京이 함락되어 羅哲初는 桂林으로 돌아가고, 黃竹齊는 필사한 사본을 지니고 陝西의 고향으로 갔다. 1939년 黃竹齊가 陝西軍장교 張伯英으로부터 자금을 기부 받아 서안에서 각판인쇄하여 250부를 간행, 세상에 공개하였는데 이를 白雲覺藏本 『傷寒雜病論』이라고 부른다. 이 판본은 인쇄할 수량이 비교적 적어서 그다지 널리 유통되지 못하였다. 1956년 桂林의 中

4) 陣乾元, 『桂林古本 傷寒雜病論』之考證及研究概述, 整合中醫學3期, 2000; p.12~30.

醫師 羅繼壽는 그의 부친 羅哲初의 필사본 원본을 내놓았고, 1960년 광서인민출판사가 이를 정식으로 출판하면서 『桂林古本 傷寒雜病論』으로 명명되었다. 1980년 원래 세로쓰기를 가로쓰기 본으로 고쳐서 제차 출판하여, 이 서적이 비로소 성행할 수게 되었다.⁵⁾

현재 간행된 『桂林古本』에는 2종류가 있다. 하나는 1980년 黃竹齊의 제자 米伯讓이 보충각인한 3페이지짜리 文書版(正誤表), 陝西中醫研究院에서 원래 黃竹齊가 각인한 白雲閣藏本版대로 200부를 再版하였는데, 遼寧 『實用中醫內科雜誌』에 1987년부터 期마다 연재한 「碧陰書室主人 廖冷仙珍藏 傷寒雜病論」이 바로 출판한 『桂林古本 傷寒雜病論』으로 1980년 7월에 세로쓰기를 가로쓰기 제판, 간체자판으로 고쳤다. 「中醫整合研究小祖」가 1986년에 간행한 『桂林古本 傷寒雜病論』은 이 판본에 의거해 간체자를 바꾸어 번체자로 하였고, 가로쓰기를 고쳐 세로쓰기로 하였으며, 아울러 각 편의 번호 및 색인을 첨가해서 검색에 편리하게 하였다.⁶⁾

1.2. 『桂林古本』 傷寒雜病論의 구성과 특성

1.2.1. 『桂林古本』의 구성 卷數 및 條文의 비교

『桂林古本』 傷寒雜病論은 모두 16卷 964條로 구성되어 있다. 『傷寒論』 序文에서와 같이 16卷으로 구성되며, 기존 舊本 『傷寒論』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론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高繼沖 傷寒論本과 같이 『傷寒論』과 『金匱要略』의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張仲景이 序文에서 이르길, ‘傷寒雜病論 도합 十六卷을 만들었는데, 비록 이것으로 모든 병을 다 낮게 할 수는 없을지라도, 적어도 병을 보면 그 원인은 알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내가 모아 기록한 것을 깊이 생각해본다면 스스로 느끼는 경우가 많게 될 것이다’라고 한 것으로부터 그 十

六卷 가운데 반드시 外感과 雜病의 論述이 대량으로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단지 仲景이 外感 혹은 雜病 가운데 하나의 작은 부분만을 논하였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가 모아놓은 것으로 살펴보고 병과 그 근원 파악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米는 ‘金匱의 여러 篇이 포함되어 있다. 대개 傷寒雜病論이라 책을 이름하였다면 金匱의 여러 篇이 실로 내용에서 빠질 수 없다. 그러므로 이 판본은 劉本보다 더 우수하다⁷⁾’고 하였다. 張은 ‘傷寒雜病論 원서가 당연히 傷寒과 雜病을 포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지금 『桂林古本』과 『金匱要略』 雜病 여러 篇을 보면 모두 각각 관련된 卷內에 산견되고 다만 그 조문은 모두 기타 여러 篇과 중복되지 않는다. 이는 『桂林古本』이 宋代의 王洙가 館閣의 좀먹은 서적 가운데서 조사해서 얻은 『金匱玉函要略方』 이전의 원서임을 설명한다’라고 하였고, 또한 ‘桂林古本’ 중의 지금 仲景의 舊論을 수집하여’ 및 ‘제반의 不可의 方治를 다시 모아’ 등의 後人이 편집한 느낌이 있는 字句가 『桂林古本』에는 없다. 때문에 『桂林古本』은 王叔和가 傷寒論을 편집하여 수정하기 전의 원서’라고 추단하였다.⁸⁾ 『桂林古本』 16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導論

卷一 平脈法第一：脈法原理, 五臟本脈, 望診, 問診

卷二 平脈法第二：脈證參合診病, 奇經八脈

卷三 六氣主客第三：四時氣候변화와 疾病과의 관계

傷寒例第四：六淫(風寒暑濕燥火)과 疾病과의 관계, 傳經, 脈證, 診斷의 指標

雜病例第五：六淫病이외의 기타질병의 치료, 진단, 예방법 및 雜病의 분류법

5) 魏雪舫, 陳忠琳, 『桂林古本 傷寒雜病論』研究述評, 國醫論壇, 1997; p.12.

6) 陳乾原, 『桂林古本 傷寒雜病論』之考證及研究概述, 整合中醫學3期, 2000; p.29-30.

7) 米伯讓, 『傷寒雜病論會通』敍後, 陝西中醫, 1982; p.3.

8) 李景榮, 白雲閣藏本 『傷寒雜病論』述評, 陝西中醫, 1982; p.1-3.

卷四 溫病

卷五 傷暑, 熱病, 濕病, 傷燥, 寒病

2) 『傷寒論』

卷六 太陽病 (上)

卷七 太陽病 (中)

卷八 太陽病 (下)

卷九 陽明病

卷十 少陽病과 太陰病

卷十一 少陰病과 厥陰病

3) 雜病論

卷十二 癘亂, 吐利, 瘧, 陰陽易, 差後病

卷十三 百合, 狐惑, 陰陽毒, 瘡, 血痺血勞

卷十四 咳嗽水飲黃汗歷節

卷十五 瘀血吐衄下血瘡癰胸痺

卷十六 婦人各病

1.2.2. 『桂林古本』와 趙本『傷寒論』과 『金匱要略』의 비교

卷一과 卷二의 平脈法은 趙本 『傷寒論』과 古本이 동일하다. 卷三의 六氣主客은 아직 발견된 바가 없으며, 傷寒例는 宋本과 趙本 『傷寒論』 모두 이편을 싣고 있다. 그리고 雜病例은 趙本 『金匱要略』 方論 卷一 臟腑經絡先後病篇에서 제목이 없다.

卷四와 卷五의 六淫에 관한 내용 대부분이 여러 『傷寒論』과 『金匱要略』의 板本에 기재되지 않았다.

張志豪는 그의 의학논평집 중에서 “傷寒例 이편의 내용은 대부분 仲景의 舊本이고 단지 작은 부분은 叔和가 추가하여 넣은 것으로 예를 들면 ‘今搜采仲景舊論’ 등과 같은 문장은 語氣가 叔和의 附語임이 매우 명확한데 단지 後人이 傳寫하면서 正文에 잘못 넣었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다. 이제 이 『桂林古本』의 傷寒例를 보면 마침 ‘今搜采仲景舊論……’ 등의 28字가 전혀 없다”라고 언급하였으며, “『桂林古本』 제 4권은 全篇이 溫病이고, 제 5권은 暑, 熱, 濕, 燥, 寒 등 六淫病 6편이며, 제 3권의 六氣主客 편을 합하면 이러한 여러 편の内容은 대다수가 이전 여러 傷寒論板本

들에는 전혀 없던 것이다. 傷寒은 外感熱病의 총칭일 뿐만 아니라 당연히 外感六淫의 모든 병을 포괄한다. 단지 舊本 『傷寒論』은 風寒外感의 諸病을 중시하였고 溫熱病 方面에 대해서는 반대로 논술이 매우 적다. 다만 제6조에서 溫病 2字를 언급하고 있으나 六淫病에 대해서는 언급이 매우 적다. 이는 결함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제 『桂林古本』는 이러한 方面에서 오히려 일정한 논술이 있고 全書의 전체 내용의 조합으로 보더라도 이것이 역시 보다 합리적이다”라고 제시하였다.⁹⁾

1.3. 『桂林古本』와 通行本 『傷寒論』, 『金匱要略』에 수록된 方藥의 비교

『桂林古本』에 수록된 方劑는 323首, 用藥은 146味인데, 通行本과 비교해서 92首의 처방이 더 포함되며, 그 외 처방은 같지만 약물이 다른 경우, 처방은 같지만 약물이 같은 경우 등 기존 舊本에 비하여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宋本 『傷寒論』 중의 禹餘糧丸, 및 『金匱要略』 중 黃連粉은 모두 처방이름은 있으나 구성이 없는데, 『桂林古本』에서는 이 方劑의 이름과 처방구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후대의 添入으로 인식되어 있는 『金匱要略』 雜療方 이하 3편이 『桂林古本』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宋本에 수록된 처방이 『桂林古本』에 없는 것도 역시 수십 개 존재한다. 이 처방의 구성에 대한 비교는 다음 논문에서 논하고자 한다.

張洪斌은 “古本과 通行本 『傷寒論』에 수록된 397조에 대한 비교 대조를 통하여 문자 혹은 방치 상에 차이가 있는 것이 119조에 달하고, 그중 古本의 기록이 보다 정확하고 합리적인 것이 85조로 차이가 나는 조문의 71.4%를 점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桂林本을 『傷寒論』, 『金匱要略』 두 서적을 가일층 연구 정리하는 거울과 참고로 삼을 만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하였다.¹⁰⁾

9) 張志豪, 張志豪論文集, 廈門大學出版社, 1995 ; p.42.

10) 張洪斌, 『桂林古本』 傷寒雜病論 評述, 國醫論壇, 1986 ; p.8.

2. 研究方法

본 연구에 기본자료로, 2004년 한국 의성당에서 정식 출간된 『桂林古本 傷寒雜病論』을 底本으로 하고, 1986년 中國 整合醫學研究小組에서 나온 PDF판본의 전자책인 『傷寒雜病論』을 참조로 하였다.

처방수에 대한 기존 의견은 매우 분분하나, 본 연구자가 직접 확인하여 본 결과 禹餘量丸과 기타 중복되는 처방을 제외하면 『傷寒論』에 수록된 처방은 114首, 『金匱要略』에 수록된 처방은 225首, 그러나 後世의 添入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雜病方 3권의 처방을 제외하면 『金匱要略』는 총 205首가 된다.

『桂林古本』에는 기존 『傷寒論』과 『金匱要略』의 기존 처방 외에 별도의 처방을 가지고 있다. 이에 처방과 본초의 구성을 분석하여 임상에서 활용될 치료방법에 있어 그 독자적인 특징을 찾고자 한다.

먼저 『桂林古本』의 정확한 처방 구성의 확인을 위하여 총 처방수와 『桂林古本』만의 독자처방을 확인한다. 둘째, 처방에 수록된 본초의 사용 빈도수를 확인하여, 기존 『傷寒論』과 『金匱要略』의 처방과 유사한 본초구성인지, 그렇지 않으면 後世 本草의 混入이 많은 구성인지를 확인한다. 셋째, 八法에 따른 처방의 수를 확인하여 기존 『傷寒論』과 『金匱要略』의 처방들과의 治法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처방을 구성하는 本草를 『神農本草經』에 따라 三品分類하여 後世處方の 本草가 얼마나 혼입되었는가를 확인한다. 伊尹은 『神農本草經』의 本草를 뽑아 『伊尹湯液』를 만들었고, 張仲景은 『伊尹湯液』를 다시 재구성하여 『傷寒論』을 지었다. 따라서 『傷寒論』은 『神農本草經』의 本草로 처방을 이루고, 또한 그 三品の 체계를 따라 구성되어 있으므로, 『桂林古本』가 後世의 僞作이 아니라면, 『傷寒論』과 마찬가지로 『神農本草經』의 본초구성을 그대로 따를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三品分類를 시행하였다.

3. 『桂林古本』 수재 처방확인

『桂林古本』에 수록된 방제는 323首로, 통행본과 비교하여 『桂林古本』만의 독자적인 처방이 92首가 있다. 이외에도 기존 처방과 처방명은 같지만 약물이 다른 경우, 처방명은 다르지만 약물이 같은 경우 등 대단히 많은 경우가 있다.

처방명은 다르나 처방의 구성과 용량이 동일한 白頭翁加甘草阿膠湯과 白頭翁加阿膠甘草湯, 그리고 柴胡枳實芍藥甘草湯과 柴胡芍藥枳實甘草湯은 동일 처방으로 보아 하나의 처방으로 산정했다. 文蛤散과 文蛤湯은 처방명은 다르나, 처방용량과 구성이 동일하다. 이 두 처방은 처방명이 다르므로 별개의 처방으로 산정했다. 黃連石膏半夏甘草湯과 黃連半夏石膏甘草湯은 처방의 구성은 같으나 처방명과 그 용량이 다르므로 별도의 처방으로 분류한다. 다음의 [표 1]에 『桂林古本』에 수록된 처방명과 독자처방을 별표(*)하여 정리하였다.

[표 1] 『桂林古本』에 수재된 323首의 처방 (*는 『桂林古本』 단독으로 수록된 92首 처방)

訶黎勒散
葛根加半夏湯
葛根湯
葛根黃連黃芩甘草湯
甘遂半夏湯
甘草乾薑茯苓白朮湯
甘草乾薑湯
甘草麻黃湯
甘草附子湯
甘草粉蜜湯
甘草瀉心湯
甘草小麥大棗湯
甘草湯
乾薑附子湯
乾薑人參半夏丸
乾薑黃芩黃連人參湯
桂枝加葛根湯
桂枝加桂湯
桂枝加大黃湯
桂枝加附子當歸細辛人參乾薑湯*

- 桂枝加附子湯
 桂枝加芍藥湯
 桂枝加黃耆湯
 桂枝加厚朴杏子湯
 桂枝甘草麻黃生薑大棗細辛附子湯
 桂枝甘草龍骨牡蠣湯
 桂枝甘草湯
 桂枝去桂加茯苓白朮湯
 桂枝去桂加黃芩牡丹湯*
 桂枝去芍藥加牡蠣龍骨救逆湯
 桂枝去芍藥加茯苓白朮湯*
 桂枝去芍藥加附子湯
 桂枝去芍藥加人參生薑湯*
 桂枝去芍藥湯
 桂枝當歸牡丹皮桃仁枳實湯*
 桂枝當歸湯*
 桂枝麻黃各半湯
 桂枝茯苓白朮細辛湯*
 桂枝茯苓枳實芍藥甘草湯*
 桂枝茯苓丸
 桂枝附子湯
 桂枝生薑枳實湯
 桂枝龍骨牡蠣湯
 桂枝二麻黃一湯
 桂枝二越婢一湯
 桂枝人參湯
 桂枝芍藥知母甘草湯-
 桂枝湯
 苦參湯
 苦酒湯
 瓜蒂散
 栝蒌桂枝湯
 栝蒌瞿麥薯蓣丸
 栝蒌牡蠣散
 栝蒌茯苓湯*
 栝蒌薤白白酒湯
 膠薑湯
 膠艾湯
 九痛丸
 葵子茯苓散
 橘皮竹茹湯
 橘皮枳實生薑湯
 橘皮湯
 桔梗甘草茯苓澤瀉湯*
 桔梗甘草枳實芍藥加地黃牡丹湯*
 桔梗甘草枳實芍藥湯*
 桔梗湯
 狼牙湯
 當歸附子湯*
 當歸四逆加吳茱萸生薑附子湯*
 當歸四逆加人參附子湯*
 當歸四逆湯
 當歸散
 當歸生薑羊肉湯
 當歸芍藥散
 當歸貝母苦參丸
 大建中湯
 大承氣湯
 大柴胡湯
 大烏頭煎
 大青龍加附子湯*
 大青龍湯
 大陷胸湯
 大陷胸丸
 大黃甘遂阿膠湯
 大黃牡丹湯
 大黃附子細辛湯
 大黃石膏茯苓白朮枳實甘草湯*
 大黃蠅蟲丸
 大黃硝石湯
 大黃香蒲湯*
 大黃黃芩地黃牡丹湯*
 大黃黃連黃芩瀉心湯
 大黃厚朴甘草湯*
 大黃厚朴枳實半夏甘草湯*
 桃核承氣湯
 桃花湯
 麻仁白蜜煎*
 麻子仁丸
 麻黃加朮湯
 麻黃茯苓湯*
 麻黃附子甘草湯
 麻黃附子細辛湯
 麻黃升麻湯
 麻黃連翹赤小豆湯
 麻黃湯

麻黃杏仁甘草石膏湯	百合貝母茯苓桔梗湯*
麻黃杏仁薏苡甘草湯	百合滑石代赭湯
麥門冬湯	百合滑石散
牡蠣澤瀉散	白虎加桂枝人參芍藥湯*
木防己去石膏加茯苓芒硝湯	白虎加桂枝人參湯*
木防己湯	白虎加桂枝湯
文蛤散	白虎加人參湯
文蛤湯	白虎加人參黃連阿膠湯*
蜜煎導	白虎加地黃湯*
礬石丸	白虎湯
半夏乾薑散	鱉甲煎丸-
半夏麻黃丸	茯苓甘草湯
半夏茯苓湯*	茯苓桂枝甘草大棗湯
半夏瀉心湯	茯苓桂枝白朮甘草湯
半夏散	茯苓白朮甘草湯*
半夏厚朴茯苓生薑湯	茯苓白朮戎鹽湯
防己茯苓湯	茯苓白朮厚朴石膏黃芩甘草湯*
防己椒目葶藶大黃丸	茯苓四逆湯
防己黃耆湯	茯苓澤瀉湯
排膿散	茯苓杏仁甘草湯
排膿湯	附子梗米湯
白頭翁加甘草阿膠湯	附子瀉心湯
(白頭翁加阿膠甘草湯)	附子細辛黃連黃芩湯*
白頭翁湯	附子湯
白蜜煎*	奔豚湯
白散	鼻塞方*
柏葉阿膠湯*	射干麻黃湯
柏葉湯	蛇床子散
白朮茯苓半夏枳實湯*	四逆加吳茱萸黃連湯*
白朮茯苓厚朴湯*	四逆加人參湯
白朮附子湯	四逆散
白朮散	四逆湯
白朮石膏半夏乾薑湯*	酸棗仁湯
白朮枳實乾薑白蜜湯*	生薑半夏湯
白朮枳實桃仁乾薑湯*	生薑瀉心湯
白通加豬胆汁湯	石膏黃連黃芩甘草湯*
白通湯	旋覆代赭湯
百合雞子黃湯	旋覆花湯
百合洗方	小建中湯
百合知母湯	燒褌散
百合地黃加牡蠣湯*	小半夏加茯苓湯
百合地黃牡丹皮半夏茯苓湯*	小半夏湯
百合地黃湯	小承氣湯

- 小柴胡加茯苓白朮湯*
 小柴胡加茯苓湯*
 小柴胡加黃連牡丹湯*
 小柴胡湯
 小青龍加石膏湯
 小青龍湯
 小陷胸湯
 升麻鱉甲去雄黃蜀椒湯
 升麻鱉甲湯
 柴胡加芒硝湯
 柴胡加龍骨牡蠣湯
 柴胡桂薑湯
 柴胡桂枝乾薑湯
 柴胡桂枝湯
 柴胡芍藥枳實甘草湯
 (柴胡枳實芍藥甘草湯)
 柴胡黃芩芍藥半夏甘草湯*
 腎氣丸
 十棗湯
 連翹阿膠半夏赤小豆湯*
 烏頭桂枝湯
 烏頭麻黃黃耆芍藥甘草湯
 烏頭赤石脂丸
 五苓散
 烏梅丸
 吳茱萸湯
 溫經湯
 王瓜根散
 王不留行散
 禹餘糧丸**
 雄黃散
 越婢加半夏湯
 越婢加朮湯
 越婢湯
 薏苡附子散
 薏苡附子敗醬散
 理中加附子湯*
 理中加人參栝蒌根湯*
 理中加黃耆湯*
 理中湯(理中丸, 人參湯)
 人參乾薑湯*
 人參白朮芍藥甘草湯*
 人參附子湯*
 人參石膏湯*
 人參地黃龍骨牡蠣茯苓湯*
 茵陳蒿湯
 一物瓜蒂湯
 炙甘草湯
 紫參湯
 芍藥甘草附子湯
 芍藥甘草湯
 豬膏髮煎
 豬胆汁方
 抵當湯
 抵當丸
 豬苓加人參湯*
 豬苓加黃連牡丹湯*
 豬苓湯
 豬膚湯
 赤小豆當歸散
 赤石脂禹餘糧湯
 葶藶栝蒌桔梗牡丹湯*
 葶藶大棗瀉肺湯
 調胃承氣湯
 皂莢丸
 竹茹半夏湯*
 竹葉石膏湯
 竹葉石膏杏子甘草湯*
 竹葉石膏黃芩澤瀉半夏甘草湯*
 竹葉湯
 竹皮大丸
 枳實橘皮桔梗半夏生薑甘草湯*
 枳實白朮茯苓甘草湯*
 枳實白朮湯
 枳實芍藥散
 枳實梔子豉湯
 枳實薤白桂枝厚朴栝蒌湯
 枳實厚朴白朮甘草湯*
 蜘蛛散
 地黃半夏牡蠣酸棗仁湯*
 地黃知母黃連阿膠湯*
 地黃黃柏秦皮茯苓澤瀉湯*
 地黃黃柏黃連半夏湯*
 地黃黃柏茯苓栝蒌湯*
 眞武湯
 天雄散

硝石礬石散
 蜀漆散
 梔子甘草豉湯
 梔子乾薑湯
 梔子大黃湯
 梔子柏皮湯
 梔子生薑豉湯
 梔子豉湯
 梔子連翹甘草栝蒌湯*
 梔子湯*
 梔子厚朴枳實湯
 澤瀉湯
 澤漆湯
 通脈四逆加豬胆汁湯
 通脈四逆湯
 下瘀血湯
 薤白栝蒌半夏湯
 滑石亂髮白魚散
 黃芩加半夏生薑湯
 黃芩牡丹皮栝蒌半夏枳實湯*
 黃芩石膏杏子甘草湯*
 黃芩湯
 黃耆建中湯
 黃耆桂枝茯苓細辛湯*
 黃耆桂枝五物湯
 黃耆當歸湯*
 黃耆五物加乾薑半夏湯*
 黃耆芍藥桂枝湯
 黃連半夏石膏甘草湯*
 黃連茯苓湯*
 黃連粉**
 黃連石膏半夏甘草湯*
 黃連阿膠半夏桃仁茯苓湯*
 黃連阿膠半夏赤小豆湯*
 黃連阿膠湯
 黃連湯
 黃連黃芩麥門冬栝蒌梗甘草湯*
 黃連黃芩半夏豬胆汁湯*
 黃連黃芩瀉心湯*
 黃連黃芩阿膠甘草湯*
 黃連黃芩梔子牡丹芍藥湯*
 黃土湯
 厚朴甘草生薑半夏人參湯

厚朴大黃湯*
 厚朴麻黃湯
 厚朴四物湯*
 厚朴枳實白朮甘草湯*
 厚朴七物湯

4. 『桂林古本』에 收載된 처방구성 한약재사용 빈도수 조사

『桂林古本』傷寒雜病論에 수재된 323首의 처방 중에 사용된 한약재의 수는 146가지이며, 총 사용빈도는 1,530회 였다. 한약재별로는 甘草가 161회로 가장 많았고, 桂枝는 81회, 生薑은 76회, 大棗 70회, 芍藥 64회, 半夏 62회, 人參 56회, 茯苓 51회, 乾薑 46회, 黃芩 43회, 白朮과 附子 각 42회, 黃連 36회, 當歸 33회, 大黃과 石膏 각 31회, 麻黃 30회, 枳實 29회, 꿀(蜜) 26회, 阿膠 地黃 杏仁 각 20회, 厚朴 細辛 각 15회가 사용되었으며, 기타의 약물들은 15회 미만의 빈도로 사용되었고,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 『桂林古本』에 사용된 약물과 빈도수

161	감초	20	아교, 지황, 행인
81	계지	15	후박, 세신
76	생강	14	청주
70	대조	13	치자, 택사, 시호
64	작약	12	길경, 지모, 모려
62	반하	11	팔루근, 목단피, 황기, 갱미
56	인삼	10	황백
51	복령	9	망초, 백합, 도인
46	건강	8	감수, 백음
43	황금	7	팔루실, 용골, 천궁
42	백출, 부자	6	갈근, 촉초, 향시, 활석
36	황련	5	죽엽, 적소두, 오수유, 정력, 오미자, 꿀피
33	당귀	4	방기, 오두, 마자인(마인), 맥문동, 총백, 장수, 지령, 자중, 적담즙

補法(補劑) 52首는 다음과 같다. 甘草粉蜜湯, 甘草小麥大棗湯, 甘草湯, 栝蒌瞿麥薯蕷丸, 栝蒌牡蠣散, 膠薑湯, 膠艾湯, 桔梗甘草茯苓澤瀉湯, 桔梗甘草枳實芍藥加地黃牡丹湯, 桔梗甘草枳實芍藥湯, 桔梗湯, 當歸散, 當歸生薑羊肉湯, 當歸芍藥散, 當歸貝母苦參丸, 麻仁白蜜煎, 排膿散, 排膿湯, 白蜜煎, 柏葉阿膠湯, 柏葉湯, 白朮散, 百合雞子黃湯, 百合洗方, 百合知母湯, 百合地黃加牡蠣湯, 百合地黃牡丹皮半夏茯苓湯, 百合地黃湯, 百合貝母茯苓桔梗湯, 百合滑石代赭湯, 百合滑石散, 奔豚湯, 腎氣丸, 溫經湯, 人參地黃龍骨牡蠣茯苓湯, 炙甘草湯, 芍藥甘草湯, 赤小豆當歸散, 竹葉湯, 地黃半夏牡蠣酸棗仁湯, 黃耆當歸湯, 栝蒌薤白半夏湯, 栝蒌薤白白酒湯, 麥門冬湯, 豬膚湯, 甘草瀉心湯, 地黃知母黃連阿膠湯, 地黃黃柏秦皮茯苓澤瀉湯, 地黃黃柏黃連半夏湯, 地黃黃柏茯苓栝蒌湯, 豬膏髮煎, 酸棗仁湯.

和法 46首는 다음과 같다. 栝蒌茯苓湯, 橘皮竹茹湯, 橘皮枳實生薑湯, 橘皮湯, 大柴胡湯, 半夏乾薑散, 半夏麻黃丸, 半夏茯苓湯, 半夏瀉心湯, 半夏散及湯, 半夏厚朴茯苓生薑湯, 白朮茯苓半夏枳實湯, 白朮石膏半夏乾薑湯, 生薑半夏湯, 生薑瀉心湯, 旋覆代赭湯, 小半夏湯, 小柴胡加茯苓白朮湯, 小柴胡加茯苓湯, 小柴胡加黃連牡丹湯, 小柴胡湯, 柴胡加芒硝湯, 柴胡加龍骨牡蠣湯, 柴胡桂薑湯, 柴胡桂枝乾薑湯, 柴胡桂枝湯, 柴胡芍藥枳實甘草湯, 柴胡黃芩芍藥半夏甘草湯, 吳茱萸湯, 人參白朮芍藥甘草湯, 人參石膏湯, 枳實橘皮桔梗半夏生薑甘草湯, 枳實薤白桂枝厚朴栝蒌湯, 竹葉石膏湯, 黃連湯, 附子粳米湯, 理中加附子湯, 理中加人參栝蒌根湯, 理中加黃耆湯, 理中丸, 人參湯, 人參附子湯, 厚朴生薑半夏甘草人參湯, 小半夏加茯苓湯, 烏梅丸, 乾薑人參半丸, 竹茹半夏湯.

清法(清熱劑) 45首는 다음과 같다. 葛根黃連黃芩甘草湯, 苦參湯, 當歸附子湯, 白頭翁加甘草阿膠湯(白頭翁加阿膠甘草湯), 白頭翁湯, 白虎加桂枝人參芍藥湯, 白虎加桂枝人參湯, 白虎加桂枝湯, 白虎加人參湯, 白虎加人參黃連阿膠湯, 白虎加地黃湯, 白虎湯, 石膏黃連黃芩甘草湯, 小陷胸

湯, 竹葉石膏杏子甘草湯, 竹葉石膏黃芩澤瀉半夏甘草湯, 竹皮大丸, 枳實梔子豉湯, 梔子甘草豉湯, 梔子乾薑湯, 梔子柏皮湯, 梔子生薑豉湯, 梔子豉湯, 梔子連翹甘草栝蒌湯, 梔子湯, 梔子厚朴枳實湯, 黃芩加半夏生薑湯, 黃芩牡丹皮栝蒌半夏枳實湯, 黃芩石膏杏子甘草湯, 黃芩湯, 黃連半夏石膏甘草湯, 黃連茯苓湯, 黃連粉, 黃連石膏半夏甘草湯, 黃連阿膠半夏桃仁茯苓湯, 黃連阿膠半夏赤小豆湯, 黃連阿膠湯, 黃連黃芩麥門冬桔梗甘草湯, 黃連黃芩半夏豬胆汁湯, 黃連黃芩瀉心湯, 黃連黃芩阿膠甘草湯, 黃連黃芩梔子牡丹芍藥湯, 乾薑黃芩黃連人參湯, 大黃石膏茯苓白朮枳實甘草湯

溫法 31首는 다음과 같다. 甘草乾薑茯苓白朮湯, 甘草乾薑湯, 甘草附子湯, 乾薑附子湯, 九痛丸, 大建中湯, 大烏頭煎, 桃花湯, 白朮附子湯, 白通加豬膽汁湯, 白通湯, 茯苓四逆湯, 附子瀉心湯, 附子細辛黃連黃芩湯, 附子湯, 四逆加吳茱萸黃連湯, 四逆加人參湯, 四逆散, 四逆湯, 烏頭桂枝湯, 烏頭赤石脂丸, 禹餘糧丸, 薏苡附子散, 薏苡附子敗醬散, 人參乾薑湯, 芍藥甘草附子湯, 眞武湯, 天雄散, 通脈四逆加豬胆汁湯, 通脈四逆湯, 黃土湯

下法(攻下劑) 37首는 다음과 같다. 鱉甲煎丸, 甘遂半夏湯, 大承氣湯, 大陷胸湯, 大陷胸丸, 大黃甘遂阿膠湯, 大黃牡丹湯, 大黃附子細辛湯, 大黃蠹蟲丸, 大黃硝石湯, 大黃香蒲湯, 大黃黃芩地黃牡丹湯, 大黃黃連黃芩瀉心湯, 大黃厚朴甘草湯, 大黃厚朴枳實半夏甘草湯, 桃核承氣湯, 麻子仁丸, 白散, 白朮枳實乾薑白蜜湯, 白朮枳實桃仁乾薑湯, 小承氣湯, 十棗湯, 王瓜根散, 茵陳蒿湯, 抵當湯, 抵當丸, 調胃承氣湯, 枳實白朮湯, 枳實芍藥散, 枳實厚朴白朮甘草湯, 梔子大黃湯, 下瘀血湯, 厚朴大黃湯, 厚朴四物湯, 厚朴枳實白朮甘草湯, 厚朴七物湯, 王不留行散.

消法(利水劑) 31首는 다음과 같다. 桂枝去桂加茯苓白朮湯, 葵子茯苓散, 木防己去石膏加茯苓芒硝湯, 木防己湯, 防己茯苓湯, 防己椒目葶藶大黃丸, 防己黃耆湯, 白朮茯苓厚朴湯, 茯苓甘草湯, 茯苓桂枝甘草大棗湯, 茯苓桂枝白朮甘草湯, 茯苓白朮甘草湯, 茯苓白朮戎鹽湯, 茯苓白朮厚朴石膏

黃芩甘草湯, 茯苓澤瀉湯, 茯苓杏仁甘草湯, 連翹阿膠半夏赤小豆湯, 五苓散, 猪苓加人參湯, 猪苓加黃連牡丹湯, 猪苓湯, 葶藶栝蒌桔梗牡丹湯, 葶藶大棗瀉肺湯, 皂莢丸, 枳實白朮茯苓甘草湯, 澤瀉湯, 澤漆湯, 牡蠣澤瀉散, 礬石丸, 硝石礬石散, 滑石亂髮白魚散.

吐法 2首는 瓜蒂散, 一物瓜蒂湯이며, 외용제 및 기타 처방군 15首는 苦酒湯, 訶黎勒散, 狼牙湯, 蜜煎導, 蛇床子散, 旋覆花湯, 燒棍散, 升麻鱉甲去雄黃蜀椒湯, 升麻鱉甲湯, 雄黃散, 紫參湯, 猪胆汁方, 赤石脂禹餘糧湯, 蜘蛛散, 蜀漆散과 같다.

5. 『桂林古本』 처방의 『神農本草經』에 따른 三品분류

『桂林古本』에 수록된 처방구성 한약재의 분포를 『神農本草經』集註에 수록된 三品分類에 따라 上品 中品 下品으로 구분한 결과 [표 4]와 같은 결과를 얻었으며, 사용건수에 대한 결과는 [표 5]로 표시하였다.

총 146 한약 중에 109개가 三品분류가 되어 있다. 총 1,531건중 上品에 속하는 한약재가 706건이며, 中品에 속하는 한약재가 418건이며, 下品에 속하는 한약재가 227건이다. 각 처방마다 한약재가 사용된 건수를 보면 上品 706건, 中品 418건, 下品 227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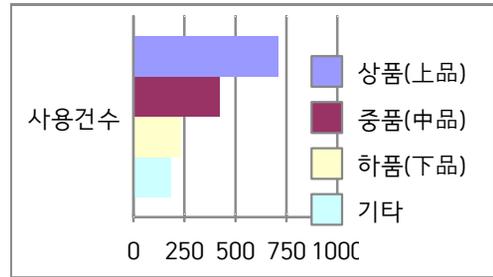
처방구성론의 하나인 本經說에 의하여 『神農本草經』의 三品分類에 따라 분류한 경우 上品, 中品の 약물이 처방에 사용된 빈도가 매우 높았으며, 下品の 빈도는 낮았다.

[표 4] 『桂林古本』 처방을 구성하는 本草의 『神農本草經』 三品에 따른 분류

	상품(上品)	중품(中品)	하품(下品)	기타	계
한약 수	44 (40.1%) ¹¹⁾	37 (33.3%)	28 (25%)	37	146
사용 건수	706 (52.2%)	418 (30.9%)	227 (16.8%)	180	1531

11) ()안에 표시된 %는 전체 한약수에서 기타를 제외하

[표 5] 『神農本草經』 삼품분류에 따른 한약재 사용건수



III. 결 론

한약처방의 元祖로 여기는 『傷寒論』과 『金匱要略』에는 여러 판본들이 존재한다. 최근 19세기 이후에 발견된 傷寒雜病論의 한 板本인 『桂林古本』인 기존의 『傷寒論』과 다른 여러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傷寒論』과 『金匱要略』의 모든 처방이 수록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독자적인 처방 92首를 수재하고 있어, 임상에서의 활용을 위한 처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본 논문은 『桂林古本』 傷寒雜病論의 특징과 수재된 처방, 그리고 한약재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桂林古本』에 수재된 처방을 분류하여 통계처리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桂林古本』에 수록된 처방 수는 총 323수이다. 기존 傷寒雜 『金匱要略』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은 『桂林古本』에만 수록된 처방은 92수에 이른다. 향후 『桂林古本』에만 수록된 처방 92수의 임상 활용을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기존 傷寒雜, 『金匱要略』와 『桂林古本』에 수록된 처방을 합친 가짓수는 363수이다.

『伊尹湯液』에는 『神農本草經』와 桐君採藥錄의 360개의 本草로 구성된 360首의 처방이 수록되어 있다. 『伊尹湯液』의 360 처방은 한의학 처

고, 『神農本草經』에 수록된 본초수 총합에서 다시 上品 中品 下品으로 분류한 것이다.

방의 시조이다. 고대 중국에서는 하나의 순환이 완성되는 숫자를 360으로 여겼다. 이에 따라 인체 혈자리 숫자도 360穴, 『神農本草經』에 수록된 한약재의 개수도 360가지, 『伊尹湯液』¹²⁾에 수록된 처방의 가짓수도 360首로 이루어져 있다. 『桂林古本』에 수록된 처방수는 323首이며, 기존 『傷寒論』과 『金匱要略』에 수록된 처방 수는 각각 114首, 205首이다. 『桂林古本』와 기존 『傷寒論』과 『金匱要略』에 수록된 처방 중 중복되는 것을 제외한 총 처방 수 363首가 된다. 이는 『伊尹湯液』의 처방 360首에 유사한 숫자로, 이와 관련된 古代 처방의 원형에 대한 연구가 향후 필요하다 생각된다.

2. 『桂林古本』에 수재된 총 한약재의 수는 146가지이며, 총 사용건수는 1,531건이다.

이중 甘草가 10.5%, 桂枝 生薑 大棗 芍藥 半夏 人蔘 茯苓 乾薑 黃芩 白朮 附子 등의 12종의 한약재가 4~5%를 차지하며 전체 한약재의 52%를 차지하고 있다. 기존 『傷寒論』과 『金匱要略』에서 사용된 한약재에 비하여 黃連 石膏 등의 淸熱劑와, 地黃 百合 등 補劑의 사용이 특징적이다.

3. 『桂林古本』에 수재된 처방의 수는 323종으로, 汗法 66개 20.4%, 補法 52개 16.1%, 和法 46개 14.2%, 淸法 45개 13.9%, 溫法 38개 11.8%, 下法 32개 9.9%, 消法 27개 8.4%, 吐法 2개 0.6%, 외용제 및 기타 처방군 15개 4.6%를 구성하고 있다. 기존 『傷寒論』과 『金匱要略』에서 사용된 처방에 비하여 淸熱劑와 補劑의 사용이 특징적이다.

4. 『桂林古本』에 수재된 한약재를 『神農本草經』에 수록된 三品분류에 따라 上品 中品 下品

으로 구분한 결과, 上品 中品 下品순으로 多用되었다.

晋代 『甲乙經』에 이르길, 『神農本草經』에서 本草를 따서 『伊尹湯液』을 지었고, 『伊尹湯液』을 論擴하여 傷寒論을 지었다(伊尹以亞聖之才, 撰用神農本草以為湯液。……仲景論廣伊尹湯液為數十卷用之多驗)라고 하였는데, 이를 보면 『傷寒論』 처방은 『神農本草經』의 本草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神農本草經』의 三品분류에 따라 『桂林古本 傷寒雜病論』의 처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桂林古本』의 처방들은 『神農本草經』의 三品과 동일한 구성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桂林古本』의 구성상 가장 독특한 특징으로 傷寒論序文에서 언급했던 16卷의 구성이며, 『傷寒論』과 『金匱要略』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것과 溫病篇이 수재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기존 『傷寒論』과 『金匱要略』에서 傷寒과 雜病을 주 치료영역으로 한 것과 아주 다른 부분이다.

이미 『內經』과 『難經』 등 醫書 중에 溫病 및 疫癘病과 관련된 篇章을 두어 집중 논술하였다. 생각건대 張仲景이 外感熱病에 대하여 글을 쓸 때 이전에 이미 존재하였던 溫病의 내용에 대해 인용하거나 總結을 가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¹³⁾ 王叔和가 『傷寒例』에서 ‘冬溫之毒如傷寒大異... 爲治不同 證如後章’이라고 말한 것과 ‘以此冬傷干寒 發爲溫病 脈之變證 方治如說’이라고 말한 것 등으로 볼 때, 만약 仲景舊論에 이러한 내용이 전혀 없었다면 그가 책 앞에서 반복해서 여러 종류의 溫病 및 時行疫氣를 언급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상의 분석을 근거로 仲景의 原著는 溫病 및 六淫病 중에 당연히 상세히 논술이 있어야 할 것이며, 傷寒에 대해선 상세히 서술하는 반면 溫病만을 생략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仲景의 遺著가 비록 王叔和의 수집과 편차를 거쳤으나 또한 전란을 겪어 오는 바람에 原書 내용의 산실이 매우 많았기 때문에 宋代에 이르러

12) 張仲景은 『伊尹湯液』를 편집하여 『傷寒論』 數十卷을 저술하였다.

『漢書·藝文志』中有『湯液經法』醫家都認爲此書爲伊尹所撰。晋代皇甫謐認爲：“伊尹以亞聖之才，撰用『神農本草』以爲湯液。……仲景論廣『伊尹湯液』爲數十卷，用之多驗”

13) 魏雪舫, 陳忠琳, 桂林古本『傷寒雜病論』溫病篇初探, 國醫論壇, 1992; p.1-5.

林億 등이 정리하여 『傷寒論』과 『金匱要略』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이미 그 全貌가 아니었다. 바로 이러한 까닭에 溫病의 論술이 결핍되었고 비로소 宋代에 와서야 朱肱 郭雍 등이 補充하는 작업을 하였다.¹⁴⁾

이러한 면으로 볼 때 『傷寒論』과 『金匱要略』에는 수록되지 않았으나 『桂林古本』에 사용된 石膏 黃連 黃芩 梔子 등의 清熱劑와, 地黃 百合 阿膠 등 補劑 등의 溫病치료 처방들은, 失傳된 溫病 처방의 옛모습을 추측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다.

또한 앞으로의 연구에서 『桂林古本』 傷寒論 板本 처방의 실제적인 가치를 판단하기 위하여, 수록된 처방들이 『傷寒論』과 『金匱要略』의 처방들과 동일한 또는 유사한 원리에 의하여 立方된 것인지 확인하고 실질적인 臨床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각 판본비교를 실시하였고 또한 각 처방들의 내용을 상세히 비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參考文獻

1. 張仲景, 桂林古本 傷寒雜病論, 의성당, 2004
2. 정종목, 『桂林古本』 傷寒雜病論에 관한 연구, 대구한의대, 2007
3. 김남재 외, 한방처방구성원리의 과학적 해석연구 (2) : 『傷寒論』 처방의 통계적 분석 연구, 대한한의학회지, 1997년
4. 전현식 외, 한방처방구성원리의 과학적 해석연구(4) 『金匱要略』 처방의 통계적 분석 연구, 대한한의학회지 19권, 1998
5. 박중현 외, 敦煌本『傷寒論』 중 輔行訣藏府用藥法要에 관한 연구, 한국한의학회연구원논문집 13권 1호(19호) ; p.43.
6. 陳乾元, 『桂林古本 傷寒雜病論』之考證及研究概述, 整合中醫學3期, 2000; p.12~30.
7. 魏雪舫, 陳忠琳, 『桂林古本 傷寒雜病論』研究述評, 國醫論壇, 1997; p.12.
8. 陳乾元, 『桂林古本 傷寒雜病論』之考證及研究概述, 整合中醫學3期, 2000; p.29-30.
9. 米伯讓, 『傷寒雜病論會通』 跋後, 陝西中醫, 1982 ; p.3.
10. 李景榮, 白雲閣藏本 『傷寒雜病論』 述評, 陝西中醫, 1982 ; p.1-3.
11. 張志豪, 張志豪論文集, 廈門大學出版社, 1995 ; p.42.
12. 張洪斌, 『桂林古本』 傷寒雜病論 評述, 國醫論壇, 1986 ; p.8.
13. 魏雪舫, 陳忠琳, 桂林古本『傷寒雜病論』 溫病篇初探, 國醫論壇, 1992; p.1-5.

14) 魏雪舫, 陳忠琳, 桂林古本『傷寒雜病論』 溫病篇初探, 國醫論壇, 1992; p.1-5.